

『2017년 업무실적 및 2018년 사업계획 보고』 결과보고

2018. 12. 20.

문서번호	기획경영팀-3977	책임	경영본부장	디자인경영단장	대표이사		
결재일자	2017.12.22.	12/20 서혜영	12/21 代지서 해	12/21 유석윤	12/22 이근		
공개여부	부분공개(5)	협 조		책임	선임		
방침번호	대표이사방침 제(522)호		12/21 정은석	12/21 임덕환			

추진근거	- 2017년 사업성과 정리 및 2018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대표이사 보고 계획(방침), 기획경영팀-3734(2017.12.6.)호		
대 내 외 협력현황	부서(단체)명	협의내용	협의결과
사 업 비	'17년 8,250천원'		

※ 문서내용을 위와 같이 간단히 요약하세요.

서울디자인재단 (기획경영팀)

사전 검토항목

※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✓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 토 항 목	검토여부 '✓' 표시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시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이 해 당 사 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전 문 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옴 브 즈 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법 령 및 기타 고 려 사 항	법 령 규 정 : 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고용효과 <input type="checkbox"/> 노동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균형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
	기 타 :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
	갈등발생 가능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관리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타 자 원 의 활 용	중 앙 부 처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민 간 단 체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거버넌스 연계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기 업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거버넌스 연계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관 계 기 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관 련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
『2017년 업무실적 및 2018년 사업계획 보고』 결과보고

2018년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2018년 사업계획 점검을 위한 본부별 워크숍 및 경영진 보고회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

○ 업무보고 개요

- 기간 : 2017. 12. 18.(월) ~ 12. 19.(화)
- 내용 : 2017년 업무실적 및 2018년 사업계획 보고
- 핵심요지
 -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직과 사업을 만들어야 하며 직원과의 소통, 서울시와의 소통이 중요함
 - 모든 재단의 사업은 브랜드화 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
 - DDP는 공간코딩을 2차로 더 진행하여 공간을 개발해야 하며 역사박물관, 교통공사 등 **유관기관과의 협력**을 통해 공간의 가치를 더 높여야 함
 - DDP 및 새활용플라자 교육 프로그램도 연계 등 **유사 사업간의 연계성**을 고려하여 사업의 품질을 높여야 함
 - **인력과 자원 분배를 효율적으로** 하고 사업의 **선택과 집중**을 해야 함
 - 연구소는 전체 **출판물과 연구용역을 관리하는 기능**을 해야함
- 대표이사 본부별 주요 요청사항

No.	본부명	주요 요청사항
1	서울디자인 연구소	<p>【디자인출판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디자인출판팀은 각 팀에서 발주내는 출판물을 관리하고 팀별 사업비 안에서 출판물 예산을 분배 받아 사업 진행 <p>【시민디자인연구센터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조직의 개념으로 할지 공간의 개념으로 할지 고민 필요 - 연구소는 재단 전체의 연구용역을 관리해야 하며 실행 기능도 해야 함. 정부사업 예산 따오는 것 검토

2	패션문화본부	<p>【패션워크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인력과 자원분배를 효율적으로 해야 함(신규사업에 따른 해외사업 인력배치 검토) - 전문가로서 중심을 잡고 사업을 끌고 나가야 하며 성과지표 필수임 - 서울시 담당 본부장이 바뀔 예정이므로 업적과 향후 계획, 방향성을 사전에 공유해야 할 것 <p>【패션산업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어스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 나가야 하며 갤러리 문 공간 확장성을 역사박물관과 검토해야 함 - 패션분야도 영디자이너챌린지 같은 사업을 해야 함 <p>【의류산업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봉제는 지원의 성격만 띄는 것보다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함
3	전략사업본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외 연계사업을 코이카, 유네스코 및 입주기업과 협력하여 개척해 나가야 함 - 개관 때는 특수상황이라 정규직이 다수 나가 있었으나 이제 다시 재배치 해야 함 - DDP 교육사업팀과 협력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것
4	상생본부	<p>【본부 전체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간코딩에 제2버전을 해야 함. 구석구석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 필요 - 앞으로는 시스템이 움직이는 디디피를 만들어야 함 <p>【디자인사업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대문 페스타는 8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영디자이너챌린지, 교육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짜야 함 - DMC 이전과 관련하여 그 공간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생산하고 50플러스재단 연계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 - 라이트웨이는 예산을 살려 상인과 소비자가 만나고 외국 디자이너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장해야 함 <p>【교육사업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새활용플라자와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 기획하고 콘텐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 시스템 움직여야 함 - 라이브러리는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함 <p>【디자인공예산업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예 박물관이 2019년 오픈하는 것에 대한 관계 및 차별화 고려 - 젊은 디자이너들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 <p>【전시사업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간송이 나간 후 뮤지엄 운영에 대한 고민 필요 - 갤러리 문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강구. 색다른 결혼식, 패션쇼, 다이팅 등 - 월드디자인네트워크를 더 확장해야하며 영디자이너챌린지는 패션분야로도 확대하여 운영할 것

5	운영본부	<p>【운영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DDP관련 자원 현황을 본부장 차원에서 파악하고 서울시랑 원활히 커뮤니케이션해야 함 - 밤도깨비야시장 관련 운영 예산을 검토할 필요 있음. DDP 예산이 투입되는 꼴임 - 유구전시장의 공간활용방안을 역사박물관과 협의하여 진행할 것 - 공간코딩 버전2가 필요하며 입주사의 아이디어도 들어볼 필요 있음 DDP 전용 안내로봇 개발도 제안 필요 - 디디피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나 지하철역 특화 방안을 고려해야 함 <p>【시설관리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설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
6	서울도시 건축비엔날레 사무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사는 성공적이었으나 비엔날레는 소통과 효율면에서 주최측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음
7	경영본부	<p>【기획경영팀/경영지원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어야 함. 승진과 MBO 평가 등 성과지표가 명확해야 함. 일을 많이 할수록 직원들과 소통이 중요함 <p>【홍보마케팅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향온향습 중요하며 이를 위한 시설보강을 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함. 좋은 전시가 취소되지 않도록 신경쓸 것 <p>【국제협력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든 재단의 사업은 브랜드화 해야함. 홍보팀, 컨데나스트 등 협력할 것

○ 향후 조치사항

- 부서별 2018년 사업계획에 요청사항 고려
- 각 부서별 관련사항 전달 및 검토

① 예산관리

- 각 팀의 출판물 출판팀에서 관리 및 예산 분배
- 을지로라이트웨이 예산 확보 검토
- 밤도깨비야시장의 운영비에 대한 예산 재검토 필요
- 향온향습 시설에 대한 예산 필요

②사업관리

- 패션위크의 고정적인 성과지표 설정 필요
- 패션분야의 영디자이너챌린지 기획 필요
- 사고이월 및 수의계약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 필요

③조직관리

-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조직 배치 방법 강구
- 연구소는 재단 전체의 연구용역 관리하도록 함
- 소통하고 거버넌스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

④인사관리

- 패션위크팀, 패션산업팀, 전산정보팀 등 인력 요청사항 검토
- 전략사업본부의 정규직 재배치 필요
- 평가에 대한 지표를 홍보하고 소통해야 함

⑤감사

-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자정작용이 되도록 힘쓰며 고충해소의 창구도 되어야 함

○ 향후 일정

- '17. 12월 단위사업별 결과보고 시행
- '18. 1월 초 부서 업적평가 시행

※ 별첨 1 업무실적 보고 회의록 각 1부.

별첨 2 본부별 업무실적 보고자료 각 1부.

첨부 1

서울디자인연구소 회의록			
일시	2017.12.18.(월) 14:00 ~ 15:00	장소	서울디자인재단 9층 대회의실
참석자 (9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이사 ○ 연구소 : 박삼철 소장, 신윤재 센터장, 권희대 팀장, 강지혜 선임, 배인혜 선임, 박동수 책임 ○ 경영본부 : 서혜영 책임, 조혜림 선임 		
주제	2017년 업무실적 점검 및 2018년 사업계획 보고		
회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박삼철 소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공미술사업은 2018년부터 서울시에서 통합 운영 예정 - 미디어 캔버스 사업은 내년에도 이어지게 할 예정으로 일단 연구소 예산으로 흡수함 • 내년도 조직개편 문제 - 시민디자인연구소와 유니버설디자인센터 관계는 정책과와 협의해야 함 ○ 대표이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디자인출판팀 사업 - 이제 각각의 팀별 사업비 안에서 출판물비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음 - 각 팀에서 발주 내는 출판물을 출판팀에서 관리하도록 예산도 가져올 것(예. 반짝반짝을지로)(예산관리) • 유니버설디자인센터 - 기존 연구소에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흡수할지 또는 센터를 공간성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. 동교동 마포센터와 상의해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만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음(조직관리) - 또는 정부에서 도와주게 하는 법을 강구하여 공간적인 센터를 구축할 수도 있음 - 정부사업을 따는 것이 필요함 - 2019년 생활사박물관 오픈할 예정인데 간송이 나가면 생활사 선행연구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진행해야 함 • 연구용역 관리 - 연구소는 재단 전체의 연구용역을 관리해야 하며 실행은 사업부서가 하되 이를 관리하는 부서는 연구소가 되어야 함(업무분장, 조직관리) - 연구소는 연구와 실행 기능까지 해야 함 		

패션문화본부 회의록

일시	2017.12.18.(월) 15:00 ~ 16:00	장소	서울디자인재단 9층 대회의실
참석자 (8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이사 ○ 패션문화본부 : 김윤희 본부장, 유주이 팀장, 최주원 팀장, 이현주 책임, 신미선 책임 ○ 경영본부 : 서혜영 책임, 조혜림 선임 		
주제	2017년 업무실적 점검 및 2018년 사업계획 보고		
회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요 이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류산업팀은 민원성 업무가 많아서 노련한 인력 필요 • 패션위크 내년 하반기 새로운 총감독 위촉 또는 연장 고민 • 패션산업팀은 일부 사업 확대 예정으로 최소 1명 이상의 인력 총원 필요(인사관리) ○ 대표이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서별로 인원은 다 부족한 것 같음. 인원을 채우는 것이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많긴 하지만, 시에서 보기엔 하나의 사업이므로 단위사업을 묶을 수 있다면 묶어서 운영할 것. 예)패션인재육성 창스 --> 텐소울까지의 사업 - 전문가로서 중심을 잡고 사업을 끌고 나가야 함. 예산과 인력 부족을 탓하지 말고 중요한 사업을 강조하고, 불필요한 부분 축소하도록 현장의, 전문적인 목소리를 낼 것. - 총감독제를 도입해서 단시간에 위상을 올렸다는 소리도 있지만, 다른 의견도 있음 - 다른 사람의 생각은 의견일 뿐이고, 패션문화본부가 중심을 잡고 목소리를 내야 함. 리더에 끌려다니면 안 됨. • 유어스 공간 활성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간을 잘 활성화하여 사용해야 함, 우리가 쓰거나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홍보해야함 - 패션분야도 영디자이너챌린지 같은 적은비용의 파급력 큰 콘텐츠 필요.(사업관리, 예산관리) 대학생 패션위크나, 졸업작품전시 등의 콘텐츠를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음. 시기만 잘 맞추면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있을 것. • 갤러리문 공간 확장성 검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역사박물관장과 협의하였는데 유적 위에 길을 추가로 내서 패션쇼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. 갈라 디너, 오프닝쇼 등을 통해 그 공간을 살릴 수 있음. • 패션위크 성과지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과지표가 꼭 있어야 하며 수주액 등 정량적인 것이 되어야 함. 문화파급력(부대행사, 주변상권 영향 등) 등 측정가치가 있는 성과지표 꼭 있어야 함.(사업관리) 미디어 효과도 매우 중요함,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며, 패션위크라고 패션 전문가들만 협업하는 것은 좁은 시각이며 열등감의 표현이라 생각 • 봉제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봉제는 지원의 성격만 띄는 것 보단,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. 패턴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, 봉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 좋음.(장인정신?) • 업무인수인계 관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시 본부장 바뀔 때 지금까지의 패션문화본부의 업적과 향후 계획, 방향성 등을 사전에 공유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음. 고생했고, 중요한일에 집중하고, 불필요한 일은 축소하도록, 제한된 예산으로 의미있는 일 할 수 있도록 하길 - 예산과 업무분장, 인사에 대한 지원은 새 해외사업 인력 필요(인사관리) 		

전략사업본부			
일시	2017.12.18.(월) 16:00 ~ 17:00	장소	서울디자인재단 9층 대회의실
참석자 (8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이사 ○ 전략사업본부 : 윤대영 본부장, 이소연 팀장, 강경남 팀장, 엄아영 책임, 김창만 책임 ○ 경영본부 : 서혜영 책임, 조혜림 선임 		
주제	2017년 업무실적 점검 및 2018년 사업계획 보고		
회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이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방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됨. 우리가 중심을 잡고 셋업해야 함. 무브먼트로 방향성을 잡아야 함. 내년에는 전략본부의 고유사업 중 하나로 새활용플라자 운영을 해야함 - 풀타임으로 나가있는 인력들이 본래 부서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할 것 - 해외관련 사업을 자꾸 개척해야 함. 코이카, 유네스코, 입주기업 등 협력하여 네트워킹을 위한 연 이벤트 등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됨. 국제적인 디자인 네트워킹에는 "업사이클" 테마는 항상 포함되어 있음. 단순 학생대상 교육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평을 넓혔으면 좋겠음 • 사업방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산을 지원하거나 공간을 지원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향을 설정해야함 -> 올해는 개관 특수라 풀타임 인력이 상주하였지만 방향성을 수정해야 함(인사관리) • 교육프로그램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디자인 교육의 일환이라 볼 수 있음. 셔틀버스가 있던데 교육사업팀이 하는 투어 프로그램, 윤리적 패션허브 등과 연계하여 이벤트를 구성해보아도 좋을 것 같음. 기존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볼 것 • 개관 성공 치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런칭을 성공적으로 했듯이 선택과 집중을 하여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것 		

상생본부 회의록			
일시	2017.12.19.(화) 10:00 ~ 11:00	장소	서울디자인재단 9층 대회의실
참석자 (14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이사, DDP경영단장 ○ 상생본부 : 최구환 본부장, 안재선 팀장, 김수정 팀장, 유성자 팀장, 전기현 팀장, 송재명 책임, 박재희 책임, 김나리 책임, 남상훈 선임 ○ 경영본부 : 서혜영 책임, 정은석 책임, 김유림 선임 		
주제	2017년 업무실적 점검 및 2018년 사업계획 보고		
회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이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DDP 사업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니까 일 많이 하시고 성공적이었음. 저도 곧 그만두는데 평가라기 보단 디디피가 개관하고 나서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었고, 앞으로는 시스템이 움직이는 디디피 2.0을 만들어야 함. 누가 와서 해도 괜찮도록. • 공예 차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내년 2019년도에 공예박물관이 오픈하는데 우리가 가진 공예와 저쪽의 전통공예는 주체도 목표가 다르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음. 디자인공예는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는 우리가 정해야함. 간송이 나간 후에 뮤지엄을 원래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, 공예박물관도 우리가 운영 여부는 안 정해졌지만 어떻게 관계를 만들 것인가 계획이 있어야함. • 동대문 페스타 관련 사업 이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페스타도 8억이 증액되었는데 그걸 영디자이너챌린지를 넣는다는지 어떻게 쓸 것이냐 계획 필요. 내부적으론 예산이 따로 있지만 밖에서 보면 커다란 하나의 행사임. 컨설턴트와 교육 다 연결될 수 있음. • 갤러리문 활성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갤러리문은 오픈큐레이팅도 하지만 요즘은 젊은 디자이너들이 결혼할 때 특이하게 함. 스토리 이벤트 장소로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음. 예식장들이 폭리 취하고 품도 안 나는데 전향적으로 전시공간이 아닐 때 놀리지 말고 일 년에 20건만 예약을 받던지 해서 스토리가 있는 이벤트를 여는 것도 공간코딩임. 역사박물관 유구에서 패션쇼할 때 좀 좁던데 예산이 있으면 정리해서 다이닝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하면 좋음. • DDP 공간코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디디피 구석구석마다 거점마다 스토리가 있어서 이벤트를 할 수 있고 미션탐험대도 하면 좋음. • DMC 이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홍대 민자역사도 규모가 큰데 DMC와 다 묶어야 됨. 단순히 싸게 임대하는 곳이 아니라 크레아처럼 콘텐츠를 끊임없이 생산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. 서울 출연기관 간 50플러스재단 같은 데서 노인분들 포토샵 배우게 하는데 그런 교육프로그램들도 기획할 수 있음. • 새활용플라자 연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새활용은 15명의 계약직이 운용하고 컨트롤은 우리가 해야함. 프로그램도 우리가 만들고, 디디피 따로 새활용 따로가 아니라 전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함. 내가 이번에 크레아 해보니 그 들은 콘텐츠를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갈래만 터주면 됨. 콘텐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어서 시스템을 움직여야함. 		

상생본부 회의록(계속)

회의 내용

• 라이브러리

- 교육도 라이브러리를 만드는데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교육이 되어야함. 디저트같이 리프레쉬한 교육이 되어야함. 요즘 초중고생은 수준이 매우 높음. 선불리 아재들이 강의했다가는 안 됨. 내년에 눈높이에 잘 맞춰서 하면 좋겠음.

• 월드디자인네트워크

- 월드디자인네트워크도 내년에 네트워크를 더 만들 것. 한 20군데만 만들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.

• 공예산업

- 공예는 내년이 중요함. 김홍란 선생님이 내년이면 끝난다고 하심. 그러니 우리가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공간 사용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될 것임. 우리의 공예는 그들처럼 그냥 사오는데 아니라 젊은 디자이너들이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임.

• 을지로라이트웨이

- 라이트웨이 예산은 계속 삭감된 상태인가?(정은석:라이트웨이 예산은 내년도 정산 끝나고 이 월금 때 얘기 가능할 것 같음.) (예산관리)세운상가는 부대이벤트 진행했었나?(안재선: 세운상가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음. 오히려 조명상가 쪽 상인들이 더 적극적임. 상인들과 소비자가 만나는 세일즈 쪽으로 풀어가는게 맞을 것 같음. 그리고 제품디자인 쇼케이스를 디디피에서 할 수도. 라이트웨이는 대학들쪽에서 연락이 많이 옴. 외국 디자이너들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음.) 공모전은 얼마쯤 드나.(전기현: 서울상징은 3억 5천. 서울공예상은 1억. 수상금액에 따라 퀄리티가 달라짐.) 라이트웨이는 규모를 더 키워야함.

• 거버넌스

- 재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함. 뭐라도 도와주려고 하면 우리 일하기 편함. 교육도 콘텐츠도 숨기지 말고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함. 영디첼이 커지는 것도 같은 이유임. 그런 점을 자극해야 하고 그게 우리의 역할임. 패션문화본부에도 얘기했지만 영디자이너 패션워크를 영디첼과 묶어서 패션전시가 되게 할 것.(사업관리)

운영본부 회의록			
일시	2017.12.19.(화) 11:00 ~ 12:00	장소	서울디자인재단 9층 대회의실
참석자 (10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이사 ○ 운영본부 : 강문석 본부장, 이호섭 팀장, 노태화 팀장, 신영희 책임, 박오름 선임, 오진섭 선임, 박혜선 선임 ○ 경영본부 : 서혜영 책임, 조혜림 선임 		
주제	2017년 업무실적 점검 및 2018년 사업계획 보고		
회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이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DDP 운영관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려운 조건에서 고생 많았음. 공간코딩 개념도 생소하고 해서 고생이 많았을텐데,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됨, DDP같은 경우 상임위에서도 지난 3년간 우리가 운영을 해보았기 때문에, 적정 인원/예산/자원 등이 이제는 예측이 될 것이라 생각됨 - 예산, 인력 등을 정확하게 전문가 입장에서 상임위에 제안 할 수 있어야 함 • 소통 및 시스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DDP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때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본부장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, 시와도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함 -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셋업과정을 거친 것이라 생각. 일이 늘어난다고 사람이 늘어나는 구조로는 운영이 어려움.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 • 밤도깨비야시장 관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밤도깨비야시장, 서울시 사업이지만 예산을 지원해주진 않음. 실질적으로는 DDP 예산이 투입되는 꼴임.(예산관리) • 유구전시장 관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구전시장 플랜(역사박물관장)에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커뮤니케이션 해봐야 함, 실제로 역사박물관 관장이 요청한 사항이도 함 - 이간수문 공간 향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고민해봐야하고, 그 장소 굉장히 좋은 장소임. 레스토랑 등 임대주면 잘 나갈 것 같음 • 공간코딩 버전2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간코딩v.2 세부공간, 가변공간, 작은 공간 ->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해보아야 함. - 직접하는 것도 좋지만 입주사를 모집하여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려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※ 인천공간 아트 스페이스: 기업의 좋은 홍보공간이기도 하다, 안내로봇이 있는데 훌륭함. LG 유플러스와 IoT 협업했는데, LG가 Naver랑 협업해서 안내로봇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음-> DDP 전용 안내로봇개발도 제안해보면 좋겠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하철역 특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-> 디디피디자인역으로 변경하고싶었는데 역명을 변경하기가 어렵다면 플랫폼에 내리자마자 DDP를 느낄 수 있게 안내사인, 디자인 등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음. 교통공사 사장을 찾아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음 		

- **시설관련 예산**

- 시설유지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-> 시에 적극적으로 제안, 커뮤니케이션 할 것 특히 DDP과 타 기관과 다르게 추가로 필요한 부분 어필할 것. 롯데 등 스폰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미디어 등 적극 유치할 것

- **시장님 요청사항**

- 시장님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테넌트 민원인지 알 수는 없지만 DDP가 잘 안돌아가는 것 같다는 민원임. 열심히 하는데 전달이 되고 있지 않는 듯. 행사가 있을 때 정책과 등 대외홍보, 초청에도 신경 써야함. 정량적인 부분(집객 000명)도 중요하지만, 정성적인 홍보, 알림도 필요함. 사람도 사람이지만 시스템! 시스템이 중요함

- **정보인프라**

- 인프라 구축하여 업무 시스템을 마련하였음. 고생이 많았음.

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 회의록

일시	2017.12.19.(화) 14:00 ~ 15:00	장소	서울디자인재단 9층 대회의실
참석자 (10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이사 ○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 : 정소익 국장, 박혜성 책임, 김나연 책임, 신명철 선임, 김그린 선임, 금명주 선임, 김선재 선임 ○ 경영본부 : 서혜영 책임, 조혜림 선임 		
주제	2017년 업무실적 점검 및 2018년 사업계획 보고		
회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이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산관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관비용 이슈가 있음, 홍보마케팅팀과 협의 중(전체 대관비용을 정산할 수는 없지만 2억 조금 넘는 비용 비엔날레 행사홍보비까지 총당하여 정산할 예정) • 향후 운영 이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내일 시장 점심 자리에서 비엔날레의 항배에 대해 논의될 것 같음(출연금이 어찌 될지, 사업 운영 주체는 누가 될지 등). 3억은 내려오는 것인지(예산관리) • 자체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평으로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함. 그러나 비엔날레는 주최측에서 운영하는게 깔끔함. 예산이나 기획, 운영 등 -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재단에서는 이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. - 연말 안에 인수인계가 되길 바람(정소익) - 재단에서 단위사업으로써는 가장 큰 사업이었음.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함 - 국장이 중간에서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고생이 많았음 		

경영본부, 감사팀 회의록			
일시	2017.12.19.(화) 15:00 ~ 16:00	장소	서울디자인재단 9층 대회의실
참석자 (11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이사 ○ 경영본부 : 지서해 팀장, 박내선 팀장, 이상목 팀장, 이재만 책임, 서혜영 책임, 정은석 책임, 김경아 선임, 최지연 선임, 조혜림 선임, 한미라 선임 		
주제	2017년 업무실적 점검 및 2018년 사업계획 보고		
회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이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영팀 역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영팀은 일을 많이 할수록 피드백을 많이 받는데, 보람도 있지만 비난도 받기도 함. 중요한 것은 전달과 소통, 이게 부재되면 결과만 놓고 각자의 생각과 말이 생겨날 수 있음. 작은 일이라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함, 피드백을 받고 시행해야 함 • 조직 및 인사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단의 조직에 대한 문제는 시행착오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개선해나갈 것. 승진, MBO 정량평가의 성과지표가 명확해야 함. 군대는 이것이 매우 명확함(별을 달지 안달지 소령쯤 되면 예상할 수 있음, 공부를 게을리 하면 별을 못 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음, 줄을 잘 선다고 승진 대상이 되지 않음). 지표 등 만들어 놔으면 말단 직원까지 다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커뮤니케이션해야 함.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님(인사관리, 사업관리) • 사고이월 및 수의계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고이월, 수의계약 등이 많아지는 것은 게으르게 업무했다는 것을 의미함. 사고이월 등 사업 일정표와 연계하여 모니터링 해야 함(감사, 기획경영팀 등이 협업하여). 사고이월 등도 업무 성과지표에 연계되어야 함(사업관리) • 시스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린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님. 시스템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하며,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업무 수행할 수 없음. • 대관관련 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향온향습 매우 중요하며, 안 되는 것은 전시장으로서 매우 치명적임. 예산과 상관없이 매우 중요! 시에 어필할 필요가 있음. 전시장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환경도 좋지 않음. 비용을 진단받아서 수행하도록, 좋은 전시가 취소되지 않도록 신경 쓸 것. 지난 3년간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 기존보다 재단 홍보할 일 많았을 것. 자료 축적하여 향후 3개년을 준비 할 것(예산관리, 시설관리) • 국제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네트워크 사업은 기본적인 사업, 재단의 모든 사업은 브랜드화 해야 함. 컨데나스트 런칭 -> 소극적인 운영이 아닌 브랜딩 필요!(패션위크는 10년정도 수행을 통해 어느정도 브랜드화 되었음) 홍보팀과 컨데나스트 협력하여 브랜딩 할 것 • 대표이사 역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표는 그냥 리더일 뿐, 각 사업단에서 중심을 잡고 리더의 성향, 리더 부재여부에 상관없이 움직여야 함 		

- **감사수행**

- 인원이 적지만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함,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경고를 줄 것. 교육도 시키고, 알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. 신문고 역할도 해야 함. 억울한 사람들을 흡수하여 소통할 수 있는 루트가 돼야함.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 있는 조직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자정 기능이 필요하며, 수행해야 함(감사 및 고충처리)

- **소통관련**

- 경영본부는 소통하고, 평가지표 명확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, 감사팀에서는 해당 사항을 순환하는 역할을 해야 함

- **서울디자인재단 방향**

- 디자인재단은 시간도 주고 보람도 주는 조직이 될 수 있음. 우리끼리 거버넌스가 안되면 시민과 소통하고 거버넌스 할 수 없음. 밑에서부터 소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함.(조직관리, 조직문화)